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내장산, 진노랑상사화를 그리는 시간

사람들은 종종 내게 그림 그리는 데 가장 오래 걸린 식물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리기로 마음먹고 완성하기 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던 식물은 진노랑상사화다.

생각해 보면 식물을 그리기 위해 책상에 앉아 있던 시간보다는 책상에 앉기까지, 그림 식물 데이터를 모으는 데에 드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뿌리로부터 가지와 줄기가 나고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다 익은 열매 속 씨앗이 익는 식물의 삶을 모두 관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9년 내내 진노랑상사화만 관찰하고 그리고 있던 것은 아니다. 더 급하게 작업해야 했던(마감일 급했던) 식물을 그리느라 진노랑상사화의 관찰이 미뤄졌을 뿐이다.

진노랑상사화는 수선화와 상사화속의 식물이다. 상사화는 잎과 꽃이 만나지 못한다는 연유로 붙여진 이름이다. 많은 식물이 하나의 줄기에서 잎과 꽃이 같이 나지만, 이들은 초봄에 잎을 내고 이 잎이 저 사라지면 그 후에야 꽃대가 길게 올라와 꽃을 피운다. 이들은 중간 교잡도 쉽게 일어난다. 상사화속 중 씨앗을 맺지 못하는 자연교잡종은 인경을 통해 무성생식으로 번식해 살아가는 독특한 성질을 지녔다. 게다가 워낙 꽃색이 다양하고 아름다워 관상식물로도 많이 식재된다. 어제 작업실 근처 국립수목원에 가보니 이미 상사화속 중 대표종인 상

사화의 분홍색 꽃이 꽃밭을 이루기 시작했다.

내가 오랜 시간 관찰해 그린 진노랑상사화도 이제 곧 꽃을 피울 것이다. 7월에서 8월 사이 이들은 긴 꽃줄기에서 네댓 개 정도의 꽃을 피운다. 식물명처럼 꽃은 진노란색이다.

나는 이들을 관찰하느라 자생지인 내장산을 자주도 찾았다. 잎을 피우는 봄을 지나 꽃봉오리를 내고 꽃이 만개하는 시기, 그리고 하나둘 지는 꽃과 피어 있는 꽃이 꽃대에 함께 하는 시기에도. 진노랑상사화 군락지를 찾을 때마다 오르던 숲길, 늘 들르던 식당과 마트가 익숙해질 때 즈음 나는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그림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2009년 처음 관찰을 시작할 때엔 늘 무거운 DSLR 카메라를 둘러매고 다녔는데, 2018년 그림을 완성할 즈음에는 더 이상 이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핸드폰 카메라가 고화질이 되었다. 숲에서 상사화 꽃이 아홉 번 피고 지고를 반복하는 시간은 도시에서 휴대용 카메라의 화질 변화로 비유된다. 그렇게 완성된 진노랑상사화 그림은 나의 첫 단행본 '식물 산책'의 표지로 남았다.

나는 또 다른 상사화와의 조우를 준비 중이다. 진노랑상사화를 그릴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일곱종의 상사화속 식물을 모두 그려 한국의 상사화속 시리즈를 완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일곱종의 상사화 중 다섯 종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서만 자생하는 한국 특산 식물이기엔 우리나라의 연구자가 그림이나 표본, 글로 꼭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진노랑상사화 한 종을 그리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지만.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상사화속 식물 중에는 진노랑상사화 외에도 지금 한창 피어나기 시작한 대표종 상사화 그리고 위도상사화와 붉노랑상사화, 백양꽃 그리고 제주에서 자생하는 제주상사화와 중국에서 온 석산이 있다. 이중 진노랑상사화와 붉노랑상사화, 위도상사화와 백양꽃은 우리나라에서도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귀한 식물이다. 게다가 제주에서만 서식하는 연주향색 꽃의 제주상사화는 백양꽃과 진노랑상사화의 자연교잡종으로 연구되었다. 다시 말해 제주상사화가 제주도에서만 분포하는 것을 밭에 제주도는 과거한 반도에서 분리되었고, 전라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나는 진노랑상사화 다음 대상으로 백양꽃을 그림 예정이다. 1930년 전남 장성 백양사 근처에서 조선총독부 소속 식물학자 나카기 다케노신 의해 처음 채집되어 백양꽃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식물. 앞으로 얼마나 또 백양꽃 자생지를 자주 찾아야 할지, 과연 우리나라 자생 상사화속 식물 기록이 다 생애 완성될지는 모르지만, 진노랑상사화를 그릴 때처럼 부지런히 산에 오르고 식물과 자주 만나다 보면 기록은 어느새 완성되지 않을까 싶을 뿐이다. <식물세밀화>

의료칼럼



조예준 조선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전임의

사랑니, 아프지 않아도 확인해 보세요

구석까지 깨끗이 관리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 인접면 충치, 잇몸 염증, 구취 등이 발생해 심한 고통을 받은 후에야 사랑니 발치 문의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다. 따라서 입안으로 일부만 보이거나 비스듬히 보이는 경우는 예방 차원에서 사랑니 발치를 고려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매복된 상태의 사랑니의 경우에서는 음식물 찌꺼기에 의한 문제는 덜 생기기 되지만 때때로 그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잇몸에 묻혀있는 사랑니 주위로 물혹(낭종)이 생겨 사랑니 주변의 턱뼈를 녹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매복된 치아 주변으로 나타나는 '함치성 낭종'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 그래서 물혹이 많이 커져 주변 턱뼈가 상당히 녹은 후에 발견하거나, 커지다가 물혹이 세균에 감염되어 통증이 있어 발견하거나, 다른 이유로 치과에 내원했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불행하게도 발견을 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턱뼈가 계속 녹아 아주 작은 충격에도 부러지거나 자가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함치성 낭종의 크기가 작을 때에는 사랑니를 발치하며 동시에 간단히 제거할 수 있으니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받는 것이 좋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매복 사랑니라 하더라도 2년에 1회 이상은 주기적으로 방사

선 사진을 통해 상태를 점검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랑니 발치는, 특히 매복 사랑니의 경우는 일반 치아와 다르게 공간이 좁고 주변 치아 또는 턱뼈 속의 신경과 가까운 경우가 많다. 만약 발치 과정에서 사랑니와 접해있는 턱뼈 속 신경에 손상이 생기면 아랫 입술, 턱 부위의 감각 저하 증세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중 심한 경우는 영구적으로 지속되기도 한다. 사랑니 뿌리 위치와 신경의 경로, 주변 치아와의 관계를 세세하게 확인하기 위한 정밀 검사가 필요하며,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진의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처럼 사랑니 발치는 기본적으로서도 고난이도의 수술이다. 따라서 합병증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고 구강 구조, 치아, 잇몸과 턱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가 이러한 의료진을 선택하는 가장 쉬운 기준은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진료받는 것이다. 구강악안면외과는 입안, 턱뼈, 얼굴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분야이다. 사랑니 발치는 구강악안면외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술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는 것도 풍부한 임상 경험과 숙련도를 가진 의료진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고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레이저, 전남 산업 지도 바꿀 '게임 체인저'

실현할 내내 구현하는 등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자연 현상 탐구가 가능해진다. 산업적으로도 세계 레이저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13조 8000억 원이었던 것이 오는 2025년 20조 8000억 원까지 50%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이 같은 레이저 기술의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 때문에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초강력 레이저 시설 구축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레이저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초강력 레이저 연구 시설 유치에 나서는 등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발 빠르게 준비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올해 말 과기부가 사업 후보지로 나주를 선정하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서 거쳐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인근 50만㎡ 부지에 9000억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초고출력·고에너지 기반 레이저 연구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초강력 레이저 연구 시설과 연계하여 인근에 레이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국내 유일의 전주 레이저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은 광주과학기술원(기초과학)-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센터(산업 지원)-광주 광산업 단지와 연계하여 레이저 관련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최적지다. 또 2020년 방사광 가속기 유치 노후와 경험도 가지고 있어 유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는 지난 2019년 7월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한 국가 대형 랜드마크 연구 시설 구축을 약속했다.

레이저는 낙후된 호남의 산업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게임 체인저' 역할을 담당할 미래 먹거리로 꼽힌

다. 무엇보다 레이저는 반도체 공정의 핵심 기술로서 전남도가 광주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와 안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21일 고충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우주의 극한 환경을 견디는 신소재 개발에 고출력 레이저 활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레이저를 통해 전남 에너지산업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된다. 차세대 에너지 신소재 개발, 레이저 무선 전력 전송, 레이저 핵융합 등 획기적 미래 에너지 기술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밖에도 첨단 의료(암 치료), 신소재 개발, 국방(신무기) 등 전남 신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앞서 언급한 리투아니아 사례는 지정학적·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전남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초격차 시대에 직면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적지 않다.

이제는 나주의 '초강력 레이저 연구 시설'에서 개발한 레이저를 활용해 '반도체'와 영화 스타워즈의 '레이저 장비'를 만들고, 이를 발견해 낸 우리 지역 인재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하거나 먼 미래가 아니다.

우리 호남인은 2년 전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해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호남의 능력을 전국에 알린 소중한 경험이 있다. 올해 10월 전국 공모를 앞두고 초강력 레이저 연구 시설을 반드시 전남에 유치할 수 있도록 도민·과학계·산업계·정관계의 하나 된 목소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社說

막오른 반도체 대전...유치 전략 더 치밀하게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인 반도체산업 유치를 위한 전국 자치단체들의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회의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의하는 등 당정이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 단지의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허가 신속 처리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 학교를 추가하고,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8기 상생 발전 기조에 맞춰 광주와 장성 인접 지역에 1000만㎡ 규모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공동 조성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및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과 연계해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다른 시도들도 반도체산업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어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인천은 그동안 유치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1600개를 기반으로 반도체산업 육성성에 나섰다. 대전은 '나노·반도체산업 육성 비전'을 선포했다. 대구·경북은 구미, 강원 원주를 각각 반도체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미래 첨단산업을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역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고, 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 성과가 전무한 것이 취약점이다. 따라서 시도는 정치권은 물론 산업계와 유기적인 공조로 관련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위한 보다 치밀한 전략과 비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인프라 확대 및 인력 양성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큰 만큼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끼니 해결 힘든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화해야

고물가로 인해 여기저기서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는 아우성이 들린다. 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6%대로 IMF 외환위기 이후 23년 8개월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광주·전남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6~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대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외식 물가 상승률은 9%대로 전국에서 최고였다.

물가 상승은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더 고통을 안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은 한정된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탓에 물가가 오르면 기본적인 먹는 문제부터 타격을 받게 된다. 최근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취약계층 자녀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결식아동 급식비다.

광주와 전남 지역 지자체가 지급하는 결식아동 급식비는 끼니당 7000원으로 이 돈으로는 제대로 된 밥 한 끼 사먹기 힘들다. 70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식

사는 김밥과 짜장면 정도다. 한국소비자원의 외식비 지표인 '참 가격'에 따르면 김치찌개 백반과 갈국수가 7800원, 비빔밥 8700원, 냉면 8800원 수준이다.

하지만 현실 물가는 훨씬 비싸다. 비빔밥과 냉면만 하더라도 한 그릇에 1만 원에서 1만 5000원까지 한다. 이렇다 보니 취약계층 자녀들이 급식비 7000원으로 갈 수 있는 곳은 편지점 뿐이다. 편지점에서 도시락이나 햄버거, 컵라면 등 인스턴트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다.

이런 취약계층 학생이 우리 지역에만 4만 2000여 명에 달한다. 결식아동 급식비는 전액 지자체가 지원한다. 재정이 넉넉한 서울 서초구 같은 곳은 끼니당 9000원 이하로 취약계층 자녀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결식아동 급식비다. 광주와 전남 지역 지자체가 지급하는 결식아동 급식비는 끼니당 7000원으로 이 돈으로는 제대로 된 밥 한 끼 사먹기 힘들다. 70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식

無等鼓

유럽 각 국가에서 수도(首都)가 거대해 진 것은 근대에 들어서다. 중세 시대에는 영주들이 각 지방을 차지하며 자신의 도시를 발전시켰다. 다른 지역과 경쟁하며 성, 광장, 분수, 아케이드, 건축물 등을 아름답게 조성한 것도 이때다. 근대 들어 통일된 국민 국가가 탄생하면서 하나의 중심 도시, 즉 수도에 역량을 집중하는 국가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수도에 정치·경제·문화·교육 등이 집중돼 있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정도가 대표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 도시의 존재감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미국, 중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상당수 국가들은 수도가 정치나 행정의 기능만 갖고 각 분야 별로 발전한 도시들은 따로 있다.

474년간 고려, 518년간 조선이라는 통일 국가로 유지된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중앙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구조를 계속 유지해 왔다. 오죽하면 말은 제주도도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옛말까지 있었다. 실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에도 경제 발전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면서 수도권과 그 연계 지역만이 앞서 성장하고 발전했다.

비정상적인 수도권으로의 집적은 현재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람이 수도권에 몰리니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자본을 축적한 투기 세력이 지방의 아파트를 대거 매입하면서 전국에 부동산 거품을 안겼다. 수도권에서 살아남기 경쟁에 허덕이는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고, 편의시설이 가득한 수도권에 비해 텅텅 비어가는 지방에서의 삶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든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서울에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리는 라 다른 곳을 쳐다 볼 여력도 없다.

문제는 균형 발전

부동산 거품, 저출산, 양극화, 지방 소멸, 공동체 붕괴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해체를 통해 지방으로 인구·기업·자본·대학을 분산시켜야 한다. 하지만 대책을 내놔야 할 정부·정당·사법부 등은 이미 수도권에 집과 재산이 있고, 대대손손 수도권에서 살기를 바라는 '수도권 기득권 세력'이 장악해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표현을 빌려 한 마디 하고 싶다. "바보야, 문제는 균형 발전이야." /윤현성 정치부 부국장 chadol@

Table with Kwangju Ilbo header,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